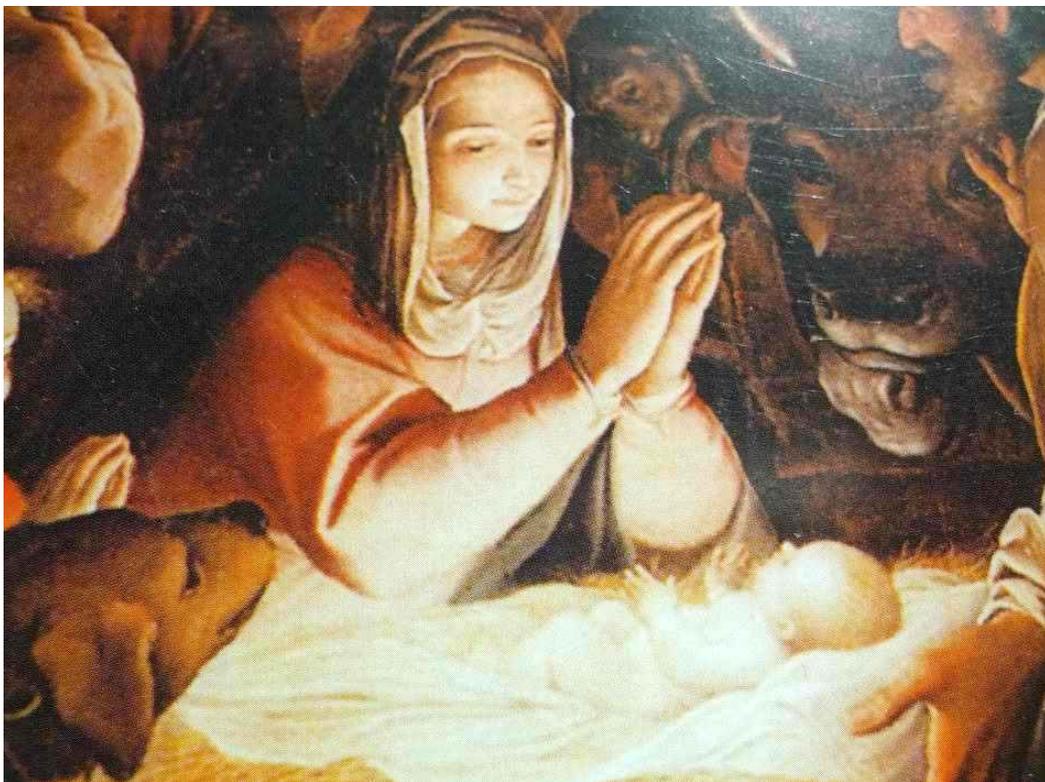


만남

2023년 12월
통권 226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함께 하는 대림시기의 기도	-----	3
바티칸 소식	-----	4
신앙 나눔	-----	11
소공동체 모임 자료	-----	12
우리 시대의 성인들	-----	15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19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월중 행사표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장애를 지닌 이들을 위하여

사회가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들이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존중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기도합니다.



♥ 함께 하는 대림시기의 기도

주님, 올 한 해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하는 대림시기에
기도와 말씀의 실천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철부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주 작은 실천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시간에
당신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기도가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희망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 가까이에 자리 잡고 앉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당신 안에서,
기쁨에 기쁨을 더하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38차 세계 젊은이의 날 담화

(2023년 11월 26일)

“희망 속에서 기뻐하십시오”(로마 12, 12 참조)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지난 8월, 세계청년대회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리스본으로 모여든 수많은 여러분 또래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의 시대에 수많은 불확실성 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과의 이 위대한 만남이 거행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키웠습니다. 이 희망은 이루어졌고, 저를 비롯하여 참석한 우리 모두의 온갖 기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리스본에서 우리의 만남은 얼마나 아름다웠나요! 참되고 고유한 변모의 체험이며 빛과 기쁨의 폭발이었습니다!

‘은총의 땅’에서 거행된 폐막 미사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의 대륙 간 순례를 위한 다음 무대는 2027년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2025년 젊은이들의 회년을 위하여 로마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또한 ‘희망의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참으로 교회의, 또한 언제나 이동하고 있는 인류의 기쁨 희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기쁨과 희망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 슬픔과 고뇌에 관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인류의 슬픔과 고뇌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사목 헌장 1항 참조). 우리는 이 회년을 준비하는 두 해 동안 먼저 바오로 성인의 말씀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로마 12,12 참조)에 관하여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 ‘주님께 희망을 둔 이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이사 40,31 참조)에 관하여 깊이 묵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희망 속에 기뻐하십시오.’는 바오로 성인이 극심한 박해 시대에 시련을

겪는 로마 공동체에 준 권고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선포한 ‘희망 속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결실이며 그분 부활의 힘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 또는 기량의 산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느님 그 자체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 나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마드리드에서 열린 2011년 세계청년대회의 경험을 떠올리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떻게 설명되니까? 분명 많은 요인이 함께 작용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믿음에서 오는 확신입니다. 곧, ‘나를 원하신다. 나는 역사적 소명을 지닌다. 나는 받아들여지고 또 사랑받는다.’라는 확신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조건 없는 받아들여짐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이 참 좋구나.’ 하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존재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줍니다”(교황청 부서에게 한 성탄 인사, 2011.12.22.).

어디에 나의 희망이 있는가?

젊음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약동하는 희망과 꿈에 부푼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하느님 피조물의 광채, 벼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과 맺는 관계, 문화 예술과 또 과학 기술과의 조우,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여러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 심지어 젊은이들조차도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여러분 또래의 많은 이들이 전쟁, 폭력 분쟁, 왕따와 온갖 고난을 경험하며 절망과 공포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들은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캄캄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사실을 보여 주는 비극적 표지가 바로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높은 자살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오로 성인이 말한 기쁨과 희망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내 희망이 있으리오? 나의 희망?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으리오?”(욥 17,15)라는 욥기의 구절처럼, 그 누구의 감사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에 선행을 해 보았자 소용없다는 생각, 곧 절망이 앞설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에 대하여, 특히 무죄한 이들의 고통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때,

시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주님께 “왜입니까?”라고 여쭙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하느님 응답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 모습으로 빛어진 우리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조차 기쁨과 희망을 자아내는 하느님 사랑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떠올려 봅니다. 매우 세심하고 창의적인 한 젊은 아버지가 가혹한 현실을 일종의 모험이자 놀이로 바꾸려고 애씁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수용소의 끔찍함에서 보호하고 아들의 순수함을 지키며 미래를 앗아가려는 인간의 악의를 막아 주어, 아이가 ‘희망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저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끔찍한 악의 사례에서조차 희망의 증인이 된 수많은 성인의 삶에서 펼쳐진 그러한 이야기들을 봅니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 요세피나 바키타 성녀, 요제프와 위크토리아 울마와 7명의 자녀 복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증언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마음에 희망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탁월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단순하고 꾸밈없이 현세 가치들을 초월하는 가치들에 대한 믿음과, 보이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 보입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21항).

‘막내’ 희망

프랑스 시인 샤를 페기는 희망에 관한 시의 서두에서 향주삼덕(向主三德), 곧 믿음, 희망, 사랑을 같은 길을 걷어가는 세 자매라고 노래합니다.

“막내 여동생 희망은 두 언니 사이에서 나아갑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

그러나 막내 희망이 모든 것을 끌어 줍니다.

믿음은 존재하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존재하게 될 것을 봅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존재하게 될 것을 사랑합니다.

.....

다른 두 자매를 걸어 나가게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두 자매를 이끌어 주는 것이 희망입니다.

모두 함께 걸어가게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두 번째 덕의 신비를 향한 문)

희망의 겸손하고 ‘작은’ 그러나 본질적인 특성을 저 역시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겠습니까? 희망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소금입니다.

희망, 밤에 빛나는 빛

그리스도교 전통의 파스카 성삼일에서 성토요일은 희망의 날입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를 잇는 성토요일은 제자들의 절망과 부활 아침의 기쁨 사이에 놓인 일종의 무인지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희망이 탄생합니다. 성토요일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저승에 가심을 침묵 안에서 기념합니다. 우리는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가시어 그 골짜기를 건너시며 빛으로 타오르시는 주님을 표현한 많은 성화에서 이를 묘사한 것을 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죽음에 대한 체험을 단순히 연민으로 바라보시거나 멀리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서 빛나며 그 어둠을 이기는 빛과 같이 저승에 있는 우리의 순간으로 들어오십니다(요한 1,5 참조). 이는 남아프리카 코사어로 쓴 한 편의 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다할지라도, 나는 이 시로 희망을 다시 살립니다. 나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님 안에 나의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좋은 결과가 가까이 왔으니, 희망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생각해 보면, 이는 “좋은 결과”가 가까이 왔다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굳건히 머무르신 동정 마리아의 희망이었습니다. 마리아께서 희망의 여인이시며 희망의 어머니이십니다. 마리아는 골고타에서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로마 4,18) 당신의 아드님께서 선포하신 부활의 확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성모님께서서는 사랑과 희망 가득한 기대로 성토요일의 침묵을 채우셨고,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이기실 것이며 악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안이한 낙관주의도, 속이기 쉬운 이들을 위한 가짜 약도 아닙니다. 이 희망은 사랑과 믿음에 뿌리를 둔 확신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시편 23,4).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슬픔과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희망의 큰 빛이시자 우리 밤길을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빛나는 셋별’(묵시 22,16)이시기 때문입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3항).

희망을 키우기

희망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된 다음에 일상생활의 걱정과 두려움과 압박으로 그 불꽃이 꺼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꽃을 희망의 커다란 모닥불로 키우려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산소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온화한 산들바람은 우리의 희망을 키우고, 우리는 여기에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희망은 기도로 키워집니다. 기도는 희망을 지키고 새롭게 합니다. 또한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도록 도와줍니다. “기도는 희망의 첫 번째 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희망은 자라나 앞으로 나아갑니다”(수요 일반알현 교리 교육, 2020.5.20.). 기도한다는 것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보면 태양이 구름으로 가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구름 너머로 올라가게 되면 그 태양의 빛과 온기가 우리를 감싸 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주변이 어둡고 음울하게 보일 때에도 태양이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것을 거듭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의 구름들로 둘러싸여 있다고 느끼며 더 이상 태양을 볼 수 없을 때 기도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아무도 더 이상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도 하느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32항). 우리는 날마다 하느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특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 짓눌린다고 느낄 때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내 영혼아, 오직 하느님을 향해 말없이 기다려라, 그분에게서 나의 희망이 오느니!”(시편 62[61],6)

희망은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키워집니다. 희망 속에 기뻐하라는(로마 12,12 참조) 바오로 성인의 초대는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선택을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고 권고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이 언제나 더욱 수월하게 보입니다. 그리하여 저의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마다 다른 이들과 희망의 말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와 주변 사람 모두의 삶에 희망의 씨를 뿌리도록 하십시오. “희망은 겸손하며 날마다 쌓아야 하는 덕입니다. …… 작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여야 합니다”(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거행한 아침 미사 강론, 2019.10.29.).

희망의 햇불을 밝히기

여러분은 때때로 밤에 친구들과 함께 밖을 나갈 때 스마트폰을 지니고 가며 그것을 손전등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규모 콘서트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 여러분이 음악의 리듬에 맞추어 이러한 현대적인 촛불을 흔들니다. 이는 인상적인 광경입니다. 밤에 빛은 우리에게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하며, 어떠한 아름다움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납니다. 희망의 빛이신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빛을 받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운 빛으로 봅니다.

우리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당신과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질문이 다음과 같았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신앙의 빛 안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희망의 빛으로 사물을 볼 때 그 사물들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느님께서 선사하신 희망의 선물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도전과 어려움은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찬’ 희망을 지닌다면 도전과 어려움이 마지막 결정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을 위한 작은 희망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믿음이 구체적이고 현실에 뿌리 박고 형제자매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만큼 이러한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높은 산에서 영광스러운 빛 속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본 그분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렀다면 자신들에게는 아름다운 체험으로 남았겠지만, 이를 다른 이들과는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피하여 도망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놓아주신 시간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선사하시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눔으로써만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과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키우면서 동시에 그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내어줌으로써 커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우리만을 위한 따뜻한 느낌처럼 지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이를 위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희망이 없어서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곁에 머무십시오. 무관심과 개인주의에 여러분 자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의 희망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흐르고 퍼질 수 있는 운하처럼 열려 있으십시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시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젊음이십니다”(「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항). 저는 거의 5년 전, 젊은이들을 위한 세계주교시노드가 끝난 다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젊은이들을 위한 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2018년 세계주교시노드 제15차 정기 총회 「최종 문서」(Final Document)와 후속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Christus Vivit)를 다시 읽어보라고 권고합니다. 이 잊을 수 없는 세계주교시노드를 온전히 이행하고자 상황을 잘 살피고 희망으로 함께 일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희망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의 기쁨이며 희망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벗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여정의 모든 단계를 즐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로써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를 위한 기도를 청합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3년 11월 9일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프란치스코

♥ 구유에 아기 탄생 (최영숙 데레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 14)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천사들 노래로 탄생을 찬미하고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시어서 오신
 구유의 아기예수님께 목동들 엎디어 경배를 드리네!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찬란한 하늘의 큰 별빛처럼
 찬바람 몰아치는 마구간에 세상의 빛이 되어 오신
 구세주메시아의 강생의 신비를 묵상하고 조배하니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세상에 살고계시네!

하늘의 왕이신 아기예수님 성자로 세상에 오시어
 말씀이 사람이 되심을 베들레헴구유에서 보이시고
 순종과 섬김을 몸소 표징으로 천상신비를 알리며
 구유아기탄생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네!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세상구원하신 아기예수
 어제는 아기예수님 품안에서 주님사랑을 받았지만
 오늘은 우리의 사랑으로 아기예수님을 안아드리고
 내일은 천상에서 아기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네!

예수님 성탄은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낳으시고
 구세주메시아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며
 아기예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영원생명주시니
 그리스도의 빛과 우리 신앙의 빛이 하나 되었네!



대림 제 3 주일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요한 1,6-8. 19-28)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오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요한 복음 1장 6절에서 8절,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 요한의 증언은 이렇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시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 23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 24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론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 도 합당하지 않다.”
-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 나는 세상에 주님을 드러냅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을 아주 높게 평가하신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루가 7,28; 참조 마태 11,11)고 하신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요한을 왜 높게 평가하시는지 알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예루살렘의 정치계와 종교계는 요한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파견된 이들은 요한이 메시아인지, 엘리야인지, 예언자인지 묻는데. 이 질문은 요한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오기 전에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엘리야인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지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요한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신을 과대표장하지 않는다. 요한의 특별함은 자신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잘 수행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다.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데 바른 소리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7-8)고 외쳤다. 요한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진리의 말을 숨기지 않는다. 요한은 놀랄 만큼 균형 있는 분이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성 요한 23세 교황(1881~1963), 축일 10월 11일

성 요한 23세 교황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소집해 교회 쇄신과 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261대 교황으로 5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재위했지만 세상을 향해 교회의 문을 열고, 세상과 대화하는 교회로 이끌었다. 굳은 신앙을 바탕으로 어느 순간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고 ‘착한 목자’로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성 요한 23세 교황의 삶을 알아본다.

▣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

성 요한 23세 교황의 세속명은 안젤로 주세페 론칼리(Angelo Giuseppe Roncalli)로, 1881년 11월 25일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 인근의 소토 일몬테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학업에 특출했던 안젤로 론칼리는 11살이던 1892년 베르가모의 소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1901년 교황청립 로마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이어갔다. 안젤로 론칼리는 1904년 8월 10일 로마 포폴로 광장 인근 성모 마리아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이듬해 론칼리 신부를 눈여겨보았던 신임 베르가모교구장 자코모 마리아 라디니 테데스키 주교는 그를 자신의 비서로 임명했다. 이후 론칼리 신부는 테데스키 주교를 수행하며 시노드와 교구 행정, 순례, 사회사목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 테데스키 주교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론칼리 신부도 노동자들의 고충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주교 비서직을 수행하면서도 신학교에서 교회사와 교부학 등을 가르쳤다. 1914년 아버지처럼 따랐던 테데스키 주교가 선종하자 론칼리 신부는 500쪽에 이르는 그의 전기를 집필하기도 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론칼리 신부는 이탈리아 육군에 징집돼 군병원에서 사목했고, 이어 군종 신부로 활동했다. 당시 겪은 전쟁의 참상은 그가 세계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갖게 했다. 전쟁 후 1919년 신학교로 돌아온 론칼리 신부는 1921년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부름을 받았다. 교황은 론칼리 신부에게 교황청 전교회 이탈리아 지부장을 맡겨, 조직을 근대화하고 국제화하는 임무를 맡겼다. 론칼리 신부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 교황청 외교관으로

비오 11세 교황은 1925년 론칼리 신부를 주불가리아 교황청 순시관으로 임명했다. 대주교로 서품된 론칼리는 이후 10년 동안 동방정교회 신자가 다수인 불가리아에서 작은 가톨릭교회 공동체의 이익을 수호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했다. 외교관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론칼리 대주교는 재치와 인내, 훌륭한 유머 감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불가리아 정부와 동방정교회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길을 열었다.

이어 1935년 론칼리 대주교는 터키와 그리스 주재 교황사절에 임명됐다. 이곳에서도 동방정교회와 이슬람교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가톨릭신자들을 돌봤다. 임기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에 점령당한 그리스를 돕고 유대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1944년 비오 12세 교황은 론칼리 대주교를 주프랑스 교황대사로 임명했다. 교황청 외교관으로 한직을 전전하던 그가 교황청 외교무대의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일은 녹록지 않았다. 당시 프랑스교회는 독일 점령 때 나치에 협력했던 주교들의 일로 분열돼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나치에 부역했던 주교 25명을 소환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지만, 론칼리 대주교는 이들이 나치 정부에 협력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결국 주교 3명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문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론칼리 대주교는 프랑스의 성지를 순례하고 여러 축제에 참가하며 프랑스교회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 교황 선출과 제2차 바티칸공의회 소집

1953년 론칼리 대주교는 추기경 서임과 함께 이탈리아 베네치아 총대교구장으로 임명됐다. 사제로서 신자들과 생활하기를 오랫동안 꿈꾸던 론칼리 추기경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지혜로 열심히 사목을 펼쳤다. 본당을 방문해 미사를 봉헌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렇게 베네치아 총대교구장으로서 은퇴를 꿈꿨지만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

1958년 비오 12세 교황이 선종하자, 76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콘클라베에 참석한 론칼리 추기경은 그해 10월 28일 교황으로 선출됐다. 그리고 그는 교황명으로 요한을 선택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비오 12세 교황의 재위 이후 유력한 교황 후보는 밀라노대교구장 조반니 바티스타 몬티니 대주교였다. 하지만 몬티니 대주교는 아직 추기경 서임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잠시 교황직을 수행할 ‘과도기’ 교황으로 성 요한 23세 교황을 선택했다. 추기경들은 새 교황이 몬티니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서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성 요한 23세 교황은 이러한 추기경들의 바람과 달리 교회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공의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교회가 현대 세계에서 어떻게 본연의 소명에 충실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해답이 공의회 소집이었다. 4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62년 10월 11일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열렸다. 공의회에서는 전례개혁을 비롯해 그리스도인 일치운동과 타종교와의 대화, 평신도 사도직, 주교들의 단체성 등 교회 쇄신을 위한 논의가 지속됐다. 4차 회기에 걸쳐 열린 공의회는 후임인 성 바오로 6세 교황이 마무리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말년 위암을 앓았다. 1962년 9월 위암 진단을 받았지만, 공의회 직전이였기 때문이 이 사실을 숨겼다. 그해 10월 공의회 기간 중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의 암운이 드리우자, 성 요한 23세 교황은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 전쟁을 원하지 않았던 양측은 교황의 중재로 위기를 해결했다. 그리고 교황은 1963년 4월 11일 위암 투병을 하면서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한 회칙 「지상의 평화」를 발표했다. 그가 ‘평화의 교황’으로 추앙받는 이유다.

결국 성 요한 23세 교황은 1963년 6월 3일 선종했다. ‘착한 목자’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교황은 2000년 9월 3일 시복됐고, 2014년 4월 27일 시성됐다. 축일은 선종일이 아닌 10월 11일이다. 이날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시작된 날이다.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김성미	16일	노아	박노아
2일	비비안나	남궁현	16일	아델하이드	진윤희
3일	비앙카	허미란	25일	마누엘	김무진
4일	크리스티안	허채열 김호현	25일	엠마누엘라	허선애
6일	아셀라	김보경	25일	노엘	이동훈
8일	마리아	박순옥 이순자 이영희 홍미옥	26일	스테파노	이명원 정순문 김재원 박동윤
13일	루치아	배수현 김지희	29일	사비네	이금자
15일	크리스티아나	홍춘자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이진아(O)	25일	아나스타시아	김영숙(B)
2일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노엘라	김유경(H)
13일	루치아	최예린(B) 문정자(B) 강은지(B)	26일	스테파노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13일	오틸리아	김선우(O)	26일	스테파니	이경숙(H)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28일	덤나	김효선(H)

❖ 12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96	212	167	91
10일	481	211	153	88
17일	90	219	159	89
24일(11시)	95	216	164	93
24일(성야)	99	105	98	101
25일	107	102	109	101
30일(송년)	106	340	166	113
31일	114	219	163	113

❖ 12월 전례 봉사 ❖

	독서	제병봉헌	해설자	커피봉사
3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신유경 (울리아)	3구역
10일	요셉마리아회	요셉마리아회	신유경 (울리아)	요셉 마리아회
17일	비르지타회	청년회	허선애 (임마누엘라)	4구역
24일 (11시)	한말조(마리안나) 신유경(울리아)	허채열(크리시티안) 허영란(엘리사벳)	허선애 (임마누엘라)	*
24일 (성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황혜인 (울리아)	*
25일	사목회	사목회	황혜인 (울리아)	1구역
30일 (송년)	남궁춘배(바르톨로매오) 김매자(베로니카)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최승진 (바오로)	*
31일	백성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김치수(도미니코) 이영희(클라우디아)	박종래 (바오로)	2구역

♥ 11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3)

윤석순, 김점선, 영희 Eggerstedt, 최순남, 이종하, 김경미, 최장용, 노수잔나, 정마리아, 한말조, 정명옥, 심동근, 조영희

✿ 공동체 계좌 입금(11)

정정숙, 송문규, 허선애, 이성원, 강신행, 이경규, 신유경, 옥수 Ranitzsch, 박종래, 김부남, 김정숙

✿ 교구 계좌 입금(32)

김치수, 이명원, 허길조, 허두욱, 백정선, 김대현, 이정수, 최화영, 이공종, 김동수, 이정은, 현영애, 김유석, 권지연, 김민옥, 이세숙, 이경란, 김영복,

남궁춘배, 이영원, 김진호, 허채열, 최성자, 배성우, 김원자, 강일남, 김정숙, 육종인, 손수희, 이철우, 박춘실, 이호준

※ 교구에 입금하셨지만 연락해 주지 않는 교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1일 기준 월말 경상비 잔액은 16.373,67유로입니다.

< 교구 계좌 안내 >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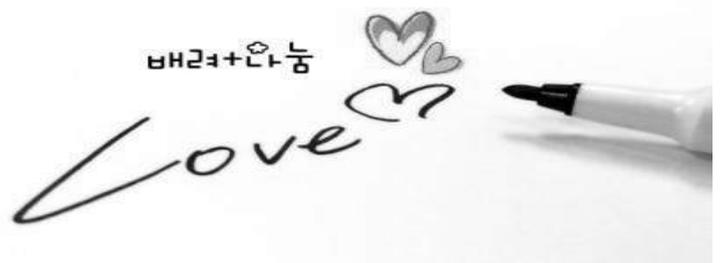
❖ 공동체 소식 ❖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2월 24일 20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성탄 밤미사, 12월 25일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성탄 대축일 미사가 있습니다. 24일 성야미사 중 ADVENIAT 2차 헌금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2. 12월 30일 토요일 17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송년 미사와 음식 나눔이 있습니다.
3. 2024년 1월 1일(월) 15시 예수성심 성당에서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12월 지방공동체 미사 안내
2일 브레멘, 9일 하노버, 16일 오스나브뤼크



사 목 협 의 회	매일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올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성 가 정 학 교	매일 셋째 주일 14시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일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11월 - 3월 주일 13시30분 ~ 14시30분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일 둘째 화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19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셋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총무			
비르지타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황혜인(올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12 월 행 사 표

2023년도

천주교 마산교구

일	요일	전례일	단체행사	비고
1	금			남하늘 신부 금육
2	토		브레멘	
3	일	대림 제1주일	구역반장 월례회	비고란 참조
4	월			
5	화			이학울 신부
6	수			
7	목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8	금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9	토		하노버	박재우 신부
10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비르지타회 월례회	
11	월			
12	화		꾸리아	
13	수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기념일		
14	목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조우현, 주경환 신부
15	금			금육
16	토		오스나브뤼크	
17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성가정 학교 요셉마리아회 · 청년회 월례회	
18	월			
19	화			
20	수		연령회 월례회	
21	목			
22	금			금육
23	토			
24	일	대림 제4주일(11시) / 성탄 성야미사(20시)	사목회	만남 1층
25	월	주님 성탄 대축일		예수성심
26	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정연우, 이진수 신부
27	수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비고란 참조
28	목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29	금	성탄 팔일 축제 제5일		금육
30	토	성탄 팔일 축제 제6일	송년미사 17시 / 만남 1층	故현기호(시문) 신부 38주기
31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비고 : ● 12월 3일 : 안명옥 주교, 서정술, 이청준, 이진수, 김진현 신부
 ● 12월 27일 : 백남국, 이정근, 이현우, 박인수, 이우진, 이상록, 윤종두, 계강준 신부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mannam@gmail.com
공동체 주임신부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6시 30분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